

존경할 만한 부자(富者)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보다 대의를 먼저 생각했던 부자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봉화의 남호구택을 찾으면 되니까.

남호구택은 1876년에 김난영(金蘭永, 호: 농산(龍山))이 건립하고, 그의 아들 김뢰식(金賚植, 1877~1935, 호: 남호(南湖))이 살던 곳이다. 대개의 경우 건립자의 호를 집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도 이곳은 아들의 호가 집의 백호(宅號)가 되었다. 유래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내부 배치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85호

봉화 남호구택

南湖舊宅

명망(名望)과
실용(實用)이
살아 있는 집

늘
대의를 앞서 생각했던
큰 어른의 집



오시는 길



주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바래미길 21
예약전화 ☎054-673-2257 / HP 010-3311-5279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namhothouse>



고고한 사연 속으로의 여행

봉화(奉化) 읍내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남호구택은, 해저리(海底里)의 한가운데에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해저는 인근 안동 등지에도 소문난 명문 마을입니다. 제 아버지의 누이들, 그러니까 제 고모님들 모두가 경상북도의 명문가로 시집을 가시고 몇몇 분은 종부로 가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도 모두 선대 어른들의 학식과 인품,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큰 족적 덕분이지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사업을 이끌다가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김호철(金鎬哲) 씨는 “지금의 해저를 있게 한 것 역시 김뢰식 할아버지가 이룬 신 업적”이라 설명했다. 상당한 부를 축적한 후에는 일가친척은 물론 이웃의 번영을 위해 베푸는 것을 아끼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베푼은 훨씬 더 넓고 높은 곳을 향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김뢰식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셔야 했는데, 있는 거라곤 농사지를 땅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 땅을 모조리 저당 잡히면서까지 군자금을 마련하셨답니다.”

항상 나라를 먼저 생각해 온 큰 어른의 결정이었다. 해방 후 시간이 지나 1977년에 이르러서야 정부에서는 김뢰식 선생에게 건국 훈장을 추서했지만, 가세는 이미 예전만 하지 못했던 게 당연한 일. 토지개혁 이후 문중의 땅을 나눠 받은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남호구택의 살림을 돕겠다 했지만 김뢰식 선생의 머느리, 즉 김호철 선생의 어머니는 이 역시도 마다하고 싶바느질로 집안을 꾸려 나갔다고 한다.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명문가의 지난(至難)한 시간을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저 상상으로만 그려볼 뿐이다.



춘양목으로 지은 든든한 집

웅방산(鷹坊山) 줄기의 낮은 야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은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안채와 사랑채가 접하여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보통 ㅁ자형 집은 사랑채의 가운데에 중문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집은 옆면에 동향으로 난 중문이 있다. 나무의 고장인 춘양(春陽)에 위치한 부잣집답게 부재의 크기가 호방하고 양질의 고급 목재를 사용하여 100년이 넘는 고택인데도 불구하고 변형되지 않고 보수한 흔적이 많지 않다.



도장방이 도드라진 사랑채

남호구택의 사랑방은 독특하게 구성되었다. 사랑채에 큰사랑, 작은사랑 등 방 3개를 사랑채로 사용하고 있으며, 큰사랑과 작은사랑 사이에는 마당 쪽으로 돌출된 도장방(導掌房)이 있어 특이한 구성을 보이는데, 이곳은 사랑채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집이 전체적으로 요철과 음양의 조화를 염두에 둔 듯한 구성과 배치로 균제미(均齊美)가 있어서, 단순하고 정제됐을 뿐 아니라 아기자기하고 실용적인 멋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봉화 지역의 ㅁ 자 주택의 특징은 완전히 닫힌 폐쇄적인 구조와 현대의 베란다 역할을 하는 빗마루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인데, 남호구택의 경우, 기후를 고려하여 수납 공간을 유연하게 만드는 등 실용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마을 도서관이었던 별채

남호구택에는 서실로 사용하는 별채가 집과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집 문을 나서서 뒤로 돌아가면 서실로 사용하였던 영규헌(映奎軒)이라는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개인 서실이기도 했지만 마을 도서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영규헌에는 '예의염치(禮義廉恥)'와 '효제충신(孝悌忠信)'이라고 적힌 편액이 있는데 조선 중기의 문신인 허목(許穆, 1595~1682, 호 : 미수) 선생의 글씨라고 한다.



양반가의 반듯한 밥상

투숙객에 한해 아침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집의 가족들이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음식들이 아침상의 주를 이룬다. 모두 경상북도 양반집의 음식들로, 그 맛이 선명하면서도 품격이 있다. 특히 인공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두 직접 담근 장으로 간을 한 덕분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즉석식품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푸근한 밥상은 없을 정도.

그 중에서도 특히 남호구택이 자랑하는 메뉴는 황태보푸라기와 수란이다. 황태보푸라기는, 잘 말린 황태살을 숟가락으로 긁어 마치 섬유 보풀처럼 곱게 갈아낸 후 설탕이나 조청 등의 단맛이 나는 양념, 소금이나 간장처럼 짠 맛이 나는 양념과 함께 버무려 내놓는다. 수란은 들깨가루와 식초, 소금으로 만든 국물에 숟가락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익힌 계란을 넣어 먹는 음식. 차갑고 시큼한 국물과 곱게 익은 계란의 몽근하고 담백한 맛이 이색적이다. 모두 귀한 손님들을 위해 정성스런 손맛으로 간을 해 고객의 기쁨과 소박한 정이 가득 배어나는 상차림이다.



[남호구택 숙박정보]

- ❖ 큰 사랑 남성 손님들을 맞이하던 곳 4~5인용
- ❖ 작은사랑 1 남성 손님들을 맞이하던 곳 4~5인용
- ❖ 작은사랑 2 남성/손님들을 맞이하던 곳 3~4인용
- ❖ 안채 상방 집안의 어른이 기거하던 곳 3~4인용
- ❖ 대문간방 집안일을 하는 사람 또는 신분이 낮은 손님이 머물던 곳 3~4인용
- ❖ 대문간 큰방 집안일을 하는 사람 또는 신분이 낮은 손님이 머물던 곳 5~6인용
- ❖ 별채(방 2개와 대청마루)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던 곳 6~7인용

- * 아침 식사는 유료(예약 필수), 저녁 식사는 제공하지 않음
- * 모든 방에서 취사 불가
- * 외부 화장실과 욕실 사용

